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2. 20. / (총 13매)			
중양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	팀 장 담 당 자	손 영 래 김 민 주	전 화	044-202-3803 044-202-380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정 경 실 유 정 민	전 화	044-202-2420 044-202-2404
중양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정 영 기 홍 승 표	전 화	044-202-2820 044-202-3598
중양사고수습본부 교민지원TF	담 당 자 담 당 자	유 보 영 김 수 환	전 화	044-202-3711 044-202-37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팀 장 담 당 자	신 현 두 윤 동 빈	전 화	044-202-2473 044-202-247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양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의료기관 감염차단 및 지원방안, 손실보상위원회 구성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양사고수습본부는 김강립 부분부장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각 부처 및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시 코로나19 집단발생 조치 및 대응방안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제6판), ▲의료기관 감염차단 및 지원방안,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요양병원 전수조사 결과 ▲우한 및 일본 귀국 국민 임시생활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1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 2월 17일 31번 환자 발생 이후, 2월 19일부터 대구·경북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대부분이 교회 예배당(신천지 대구교회) 내에서 매개되어 발생하였고, 그간 사례에 비해 전파력이 높아 향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는 대구시에 즉각대응팀 18명, 중앙사고수습본부 6명 등을 현지 파견하고 대구시 협력하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TF팀장(보건복지부 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28명 내외로 구성된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 지역 내 진단검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선별진료소 8개를 추가 (14 → 22개)하는 중이며, 공중보건 의사 24명도 2월 20일에 교육 후 추가 배치한다. 또한, 신천지교단의 협조를 받아 교인들이 자가격리 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확진자 치료를 위하여 대구의료원 및 지역대학병원 등 지역 내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진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 정부는 발열이 없는 가벼운 감기 증상의 분들까지 선별진료소에 모이는 경우 적절한 진료가 어렵고, 교차 감염 가능성도 커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 발열이 동반되는 호흡기 증상은 바로 병원이나 응급실로 찾아가지 말고 1339와 보건소에 먼저 전화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김강립 부본부장은 "방역 당국이 감염 확산을 통제해 나가고 있는 중으로, 지나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방역 당국의 안내에 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제6판)

- 국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을 개정(제6판)하고 오늘 0시부터 적용한다.

- 개정된 대응지침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며,
 -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 실시, 음성임을 확인 후 격리 해제한다.
- 김강립 부분부장은 “신종 감염병 특성상 대응지침 등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에 따라 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의료기관 감염 차단 및 지원 방안

- 김강립 부분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월 19일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에서의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 김강립 부분부장은 “지금까지의 전파속도와 전파양상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와 다른 차원의 실행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어제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방안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역할 등을 논의하였다.
- 아울러 김강립 부분부장은 “의료계에서도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의 조기진단 및 치료에 따라 의료기관이 겪는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규모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한 병상과 인력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를 진단·치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조기 지급 ▲수가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한 현황신고 면제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의료진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사례 정의를 확대하고,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4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을 논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2월 17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손실 보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위원장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 의료·법률 전문가,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위촉 위원 임기 3년 (제2기 2020년 2월 17일 ~ 2023년 2월 16일)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손실 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요양병원 전수조사 결과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7일부터 2월 18일 이틀간 전국 요양병원 1,435개소*에 대하여 중국 등 여행 이력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면회객 제한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하였다.

* 당초 조사대상 1,479개소 중 휴·폐업으로 인한 조사불가 44개소 제외

- 조사를 실시한 요양병원 중 간병인에 대한 업무 배제율은 97.4%였으며, 병원 또는 환자의 요청으로 14일 이내 중국 여행 이력자는 대부분 이미 업무배제 되고 있었으나, 1명은 배제되지 않아 현장 조치하였다.

- 의료인, 행정직원, 청소 용역직원 등 종사자에 대한 업무 배제율은 100%였으며, 면회객 제한율은 99.4%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이 앞으로도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주 1회 모니터링하고, 이 조사 결과 및 향후 모니터링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며 개별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우한 및 일본 귀국 국민 등 임시생활 현황

- 지난 2월 12일부터 국방어학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우한 귀국 국민 등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입소 생활을 하고 있다.
- 지금까지 정부합동지원단(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파견직원) 내에 의사 2명, 간호사 2명, 의료통역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은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 관리 24회, 심리상담 23회, 심리교육방송 8회 및 금연상담 2회 등을 실시하였다.
- 아울러 2월 19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 입소하여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한 일본 귀국 국민 등 7명은 입소 직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 * 우리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어려운 상황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 붙임 >
1.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3.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붙임1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구 분	성명	주요 경력
1	공동위원장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2	공동위원장	임태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 전(前)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3	임명직	이창준	○ 중앙사고수습본부 고위공무원
4	위촉직	김정하	○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5	위촉직	송재찬	○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6	위촉직	좌석훈	○ 대한약사회 부회장
7	위촉직	한민경	○ 대한간호협회 정책 전문위원
8	위촉직	한원근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9	위촉직	강희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10	위촉직	강정희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11	위촉직	기모란	○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 ○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교수
12	위촉직	정해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 전(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13	위촉직	최상철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전(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4	위촉직	홍 철	○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 간사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장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국민수칙

필수 위생수칙 4가지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s://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국민 여러분!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의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용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선별진료소 갈 땐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타인과의 접촉 삼가**



의료진 여러분!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호흡기 질환자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ITS 활용 등)



**진찰 시 환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보건소로 신고**

붙임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20.2.12.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붙임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해외감염병NOW www.해외감염병now.kr

붙임5

감염병 예방수칙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